

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9594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1. 4. 20.

발 의 자 : 민홍철 · 김민철 · 김윤덕  
송갑석 · 송옥주 · 이상현  
이형석 · 임종성 · 전재수  
조승래 · 홍성국 · 김정호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,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).

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의 제목 중 “결격사유”를 “결격사유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육군·해군·공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 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2의 제목 중 “결격사유”를 “결격사유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육군·해군·공군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

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1조의3(사관후보생의 <u>결격사유</u> ) (생    략)<br><br><u>&lt;신    설&gt;</u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u>&lt;신    설&gt;</u> | 제11조의3(사관후보생의 <u>결격사유</u>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br><br>② 육군·해군·공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.<br><br>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| 제14조의2(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<u>결격사유</u> ) (생    략)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u>&lt;신  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| 제14조의2(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<u>결격사유</u>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br><br>② 육군·해군·공군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신 설>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